

스포츠 꿈나무 한마당 ‘전국소년체전’ 내일 팡파르

전국 스포츠 꿈나무들의 축제인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꿈꾸는 우리, 어울림과 성장의 체전’이라는 구호 아래 펼쳐지는 이번 소년체전은 경남 일원 48개 경기장에서 36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된다.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2만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2세 이하부와 15세 이하부로 나뉘어 열린다.

광주는 이번 대회에 33개 종목 1045명(선수 630명·임원 415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목표는 금메달 17개, 은메달 17개, 동메달 32개 등 총 66개의 메달 획득이다.

먼저 근대 3종에 출전하는 이루리(광주체중 3년), 레슬링 최지원(광주체중 3년), 에어로빅 이태민(에어로빅합합댄스전문스포츠클럽) 등은 대회 2연패를 노린다. 육상 강요한(광주체중 3년)과 체조 송채연(광주체중 3년)은 2관왕을 목표로 한다.

또 강세 종목인 레슬링에서는 F80kg급 김수형(광주체중 3년)이, 태권도에서는 54kg급 허단(일동초)이 각각 금메달에 도전한다. 단체전에서는 소프트테니스 여U15에 출전하는 신광중과 탁구 남U12에 출전하는 송정초의 우승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야구 명문 수창초, 핸드볼 조대여중도 메달 사냥에 나선다. 복싱 이창욱(광주체중), 씨름

경남 김해 일원서 27일까지 열린

광주, 근대3종 이루리 2연패 도전

육상 강요한·체조 송채연 2관왕도

전남, 레슬링·태권도 등 활약 예상

금 18·은 13·동 63 메달 94개 목표

박유찬(화정남초), 조정 김준영·구시은(광주체중) 또한 선전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선수단의 이색이력 역시 눈길을 끈다. 박종규 광주시당구연맹 회장의 장녀 박연정(조봉초 5년)이 바둑 여U12에 출전한다. 양궁 삼형제인 조유준·담준(이상 삼정초 6년), 여준(광주체중 2년)과 배구 삼남매 김진아(광주체중 3년), 김진성(문흥중 1년), 김진서(문정초 5년)가 가족의 힘을 과시할 예정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우리 꿈나무 선수들은 광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선수”라며 “그동안 흘린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순간을 기대하며, 결과도



지난해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순천팔마중 배구부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소년체전 메달을 획득한 광주체중 근대3종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요하지만 과정 속에서 배운 도전과 성장의 경험

이 앞으로의 삶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남에서는 35개 종목에 1229명(선수 748명·임원 481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이들은 금메달 18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63개 등 총 94개의 메달을 노린다.

전남은 지난 17일과 18일 사전경기로 진행된 육상 종목에서 이미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등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본 경기에서는 수영 김루아(한려초)와 문승유(영암초)의 2관왕을 비롯해 역대 박건민(완도중)의 3관왕, 불령 김강민(북포제일중) 등이 금메달 기대주로 꼽히고 있다.

또 레슬링 F71kg급 김정민(전남체중)·G92kg급 심석무(함평중)와 바둑에서 한국바둑중의 남·여 단체전, 복싱 웰터급 손지후(나주 금천중), 씨름 경장급 조서후(아수중)·청장급 김태산(관산초), 태권도 -45kg급 정형민(구봉중) 등이 금메달 후보군

으로 분석된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며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린 만큼,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쳐 후회 없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아린 학생선수들이 보니 변수가 많지만, 전남체육의 꿈나무들이 선전에 도전과 체육인들의 위상 제고에 크게 일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하경 기자 hajong2@gwangnam.co.kr



유로파 우승 트로피 들어 올린 손흥민.

썬

손흥민 드디어 ‘무관’ 탈출…토틀넘, 유로파 정상

전반 42분 존슨 결승골 1-0 승리…17년 무관 끝내고 UCL 티켓 쟁취

손흥민 후반 교체 투입 우승 기여…프로 15년 만에 첫 우승 삼패인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틀넘 홋스퍼의 손흥민이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토틀넘은 22일(한국시간) 스페인 빌바오의 산 마메스 경기장에서 열린 2024-2025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전에서 전반 막판 터진 브레넌 존슨의 결승골을 끝까지 지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에 1-0으로 이겼다.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은 후반 22분 교체 투입돼 경기가 끝날 때까지 20여분간 그라운드를 누비며 승리에 이바지했다.

한국 축구의 ‘캡틴’ 손흥민은 유럽 1군 무대에 데뷔하고서 무려 15시즌 만에 처음으로 우승 축배를 들었다.

토틀넘은 손흥민이 뛰는 동안 2016-2017시즌 프리미어리그(EPL), 2020-2021시즌 리그컵, 2018-2019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준우승만 3차례 기록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우승을 경험하지 못한 손흥민이다. 연령별 대회로 분류되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축구 금메달을 따냈을 뿐이다.

토틀넘 역시 2007-2008시즌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에 공식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무관의 역사를 끝냈다.

유럽 클럽대항전에서 토틀넘이 우승한 것은 UEL의 전신인 UEFA컵에서 우승한 1983-1984

시즌 이후 41년 만이다.

EPL에서 잔류 마지노선인 17위에 그치는 등 최악의 시즌을 보낸 끝에 이룬 우승이라 더 극적이다. 토틀넘은 UEL, 우승 트로피와 함께 다음 시즌 UCL 본선 직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현지 언론과 팬으로부터 크게 비판받던 ‘변방’ 호주 출신의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임 2시즌 만에 우승을 지휘해내며 ‘영웅’으로 떠올랐다. 토틀넘과 마찬가지로 EPL에서 16위로 부진한 맨유는 결국 빈손으로 시즌을 마쳤다.

EPL 빅클럽이면서도 나란히 하위권으로 처진 두 구단이 결승에서 맞붙게 된 것 자체로 극적인 맞대결인 만큼, 4만9000여 관중석이 꽉 찼다.

손흥민은 지난달 11일 프랑크푸르트(독일)와 UEL 8강 1차전에서 발을 다쳐 한 달 넘게 실전을 소화하지 못했다.

맨유가 경기 초반 토틀넘 진영을 몰아쳤다. 전반 5분 맨유의 사령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골 지역 왼쪽에서 양 팀 통틀어 첫 슈팅을 기록했다.

토틀넘도 전반 11분 역습 상황에서 파페 사르가 첫 슈팅을 날리는 등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결승전답게 양 팀 모두 끈질기게 수비하면서 팽팽하게만 흘러가던 경기의 균형은 전반 42분 존슨의 선제골로 깨졌다.

토틀넘 파페 사르가 왼쪽에서 올린 대각선 크로스를 문전으로 쇄도하던 존슨이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이 제대로 맞지 않았고, 공은 뒤따르던 맨유 수비수 루크 쇼의 몸을 맞고 골대 안으로 향했다.

쇼의 자책골로 기록될 뻔했으나 UEFA의 공식 기록은 존슨의 득점이었다.

토틀넘은 후반 17분 절호의 추가 득점 기회를 잡았지만, 스트라이커 도미니 솔란케가 패스받기 직전 미끄러져 슈팅 타이밍 놓치면서 무산됐다.

후반 22분 몸에 이상을 호소하며 교체를 요청한 히살리송 대신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밟았다. 패배 위기에 몰린 맨유의 뜨거운 공세를 토틀넘은 힘겹게 막아냈다. 손흥민도 공격을 펼치기보다는 수비 가담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후반 27분에 페르난데스의 다이빙 헤더가 골대 오른쪽으로 빗나갔고, 2분 뒤에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의 매서운 슈팅이 토틀넘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의 선방에 막혔다.

추가시간은 7분이었으며, 주심이 실제로 경기 종료 휘슬을 건 건 후반 45분이 끝나고 8분 23초나 지난 시점이었다.

토틀넘은 맨유가 처절하게 펼친 총력 공세를 모두 막아내고 챔피언으로 등극했다.

손흥민은 어깨에 태극기를 두른 채 스태프, 동료들과 포옹을 나누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어 주장으로서 우승 세리머니의 주인공으로 나서 트로피를 가장 먼저 들어올렸다.

손흥민은 1980년과 1988년 프랑크푸르트(독일)의 UEFA컵 우승을 이끈 차범근 전 국가대표 팀 감독에 이어 이 대회 우승을 맞은 또 한 명의 한국인 선수로 남는다.

연합뉴스

나주시청 사이클팀, 최정상급 기량 입증

전국 사이클대회서 준우승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이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배 ‘제27회 전국 사이클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하며 기량을 입증했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청 사이클팀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경북 영주시 경륜훈련원에서 열린 전국 사이클대회에서 전국 101개팀 463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인·단체전 합산 총점 134점을 획득하며 종합 준우승을 달성했다.

최근 제24회 인천광역시장애인 전국 사이클대회, 제42회 대통령기 전국 사이클대회 종합우승에 이은 쾌거로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다.

나주시청 사이클팀은 금메달 3개, 은메달 6

개,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팀 주장이자 국가대표인 김하는 선수는 주종목인 경륜을 비롯해 이번 대회 3개 종목에서 금메달 3개를 쓸어 담았다.

뛰어난 지도력으로 준우승에 이바지한 서석규 팀 코치는 대회 최우수지도자상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누렸다.

시청 사이클팀은 다음달 21일 열리는 ‘2025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에 종합우승을 정조준하고 대회 준비에 구슬땀을 흘릴 예정이다.

윤병태 시장은 “최근 전국대회 종합우승 2회에 이어 이번에도 종합 준우승으로 시청 사이클팀이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파죽지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최정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배 ‘제27회 전국 사이클대회’에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한 나주시청 사이클팀

신진서 꺾은 박정환, 4년만에 메이저 우승 도전

LG배 8강은 변상일과 대결

2010년대 한국 바둑계에서 가장자로 군림했던 박정환(32) 9단이 부활의 나래를 펼쳤다.

박정환은 21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제30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16강에서 부동의 한국랭킹 1위 신진서(25) 9단에게 백 불계승을 거뒀다.

초반 우하귀 전투에서 유리한 형세를 만든 박정환은 신진서의 계속되는 혼들기를 막아내며 보기 드문 완승을 거뒀다.

박정환이 신진서를 상대로 승리한 것은 2022년 7월 YK간기배 본선 이후 무려 2년 10개월여 만이다. 그동안 신진서에게 무려 17연패를 당하다 파낸 값진 승리였다.

박정환은 신진서 이전 오랜 기간 한국 바둑계를 평정했던 1인자였다. 2006년 입단 때부터 ‘신동’으로 불렸던 박정환은 만 19세이던 2012년 6월 이세돌 9단을 따돌리고 한국랭킹 1위에 올랐다.

통산 36개의 타이틀을 획득한 박정환은 메이저 세계기전에서도 5차례나 우승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천재기사’ 신진서가 출현하면서 박정환은 정상에서 밀려났다.

특히 2020년 12월 열린 ‘남해 슈퍼매치 7번기’에서 신진서에게 7전 전패의 수모를 당한 박정환은 전성기가 끝났다는 평가마저 받았다.

하지만 신진서가 지배하는 바둑계에서도 끈질기게 2인자로 살아남은 박정환은 다시 한번 정상에 오를 기회를 잡았다.

박정환은 오는 8월 열리는 8강에서 변상일 9단과 대결한다.

변상일이 ‘디펜딩 챔피언’이긴 하지만 상대 전적은 18승 9패로 박정환이 앞선다.

이번 LG배는 지난 대회 결승에서 있었던 커제 9단의 기권과 여파로 중국 선수들이 전원 불참했다. 이에 따라 신진서를 넘은 박정환이 변상일마저 꺾는다면 우승 가능성이 매우 커질 전망이다.

박정환은 LG배 8강에 앞서 내달 20~23일 춘란배 우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